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전문사전 발간 활발 / 中韓醫學은 이미 나와 / 생물학 사회과학 방송 디자인등 출간준비 / 국내연구 성과 축적, 외국관 베껴먹기 탈피(동아일보 2월13일 梁泳彩기자)

●古典 國譯정리 지원책 급하다 / 예산 변역요원 턱없이 모자라 / 대상 9천중중 3백중만 끝내 / 관련기관들 제각기 연구도 문제(동아일보 2월13일 金次洙기자)

●「獨立運動大典」 나왔다-항일 투사 李康勳 15년 각고의 결실 / 1,000여 인물·900여 사진 수록(경향신문 2월13일)

●고대사의 수수께끼 「目支國」 究明-千寬字씨「古朝鮮史·三韓史 연구」출간 / 「箕子攷」 등 논문 8편 모음...「癡菴 학술상」 수상 / 目支國 있던 미추홀은 현재의 仁川 / '마한 위치는 흥성' 종래 익산설 수정(서울신문 2월14일 任英淑기자)

●북한문화 연구서 출간 러시-을유·신원·고려원등 시리즈물 내놓아 / 언어·문학·언론·민속등 다양 / '젊은세대에 올바른 시각제공' 환영에 / '정부기관 지원으로右편향적' 눈총도(내외경제신문 2월14일 南眞祐기자)

●大陸硏究심 「북한 연구회」 창립-「북한법령집」 5권 4월 출간 / 金烈圭교수등 각계 전문가 참여 / '체계적 연구 통해 정책대안 제시' (한국일보 2월14일 李基昶기자)

●베스트셀러 '재미있지만 무익' -소장평론가 4명 인기작품 비평집 「베스트셀러」 펴내 / 趙廷來씨 세계관 한계로 역사적 진리 재현 실패 / '李文烈씨 인기는 암울했던 현실 덕분'(경향신문 2월14일 金東律기자)

●「문학동아」「한길문학」 문예지 2종 창간 / 민족문학 신인들 신선한 작품 담아낼 채비 / 의욕적 출발...침체된 문단에 활력소 기대(매일경제신문 2월14일 李奉濤기자)

●「한국의 성과와 봉수」 출간-보이스카우트聯...국내최초 현지답사 통해(한국일보 2월15일)

●“화가 68명 그림 집대성했다”-「한국근대회화선집」 전27권 발간 / 남월북작가 포함 1천3백50점 수록 / 미공개작도 다수...미술사적 '큰자료'(스포츠서울 2월15일 류창하기자)

●8旬 여학자가「버섯圖鑑」 완성-金三純박사, 7년 노력 결실 / 응용菌學의길...한국산연구 성과 / 식용가능성등 정리, 총325종 수록 / '버섯은 수명짧고 민감...촬영·채집에 어려움 많아'(한국경제신문 2월16일 李汀桓기자)

●책광고 늘고 대형화 추세 / 광고홍수시대 시선끌기 일환 / 신문 전5단 사용 보통...TV에도 등장 / 단행본 모아 게재...비용줄고 효과 높아(중앙경제신문 2월16일 金龍善기자)

●“베스트셀러 되려면 긴제목 달아라” / 시·소설 할 것 없이 인기책 10자 넘어 / '제목으로 시선 끌기' 출판계 고심 / 「방랑시인」 29자로 가장 긴 기록(매일경제신문 2월17일 李奉濤기자)

●지역新聞·잡지 창간러시-地自制 앞두고 폭발...작년 한해 315개 / 공동체의식 함양 한몫...정치성 배제 등 과제(경향신문 2월17일 安健憐기자)

●전문잡지 출판러시-「컴퓨터랜드」 등 1천여종 / 취미 직업 따른 다양성이 세분화 부재질 / 고정독자 확보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(스포츠서울 2월18일 류창하기자)

●일산출판단지 가속화 기대-출판협동조합 새 이사장 李起雄씨 / 團地 추진委員長겸...지원 쉬워져 / 保守性탈피 조합 개방운영 밝혀(조선일보 2월18일 崔球植기자)

●버섯연구 외길 50년 전국야산 7년 누벼-「버섯도감」 펴낸 김삼순 박사 / 325종 특징별로 분류 수록 / 여성 농학박사 1호·학술원회원 / 균학회창설 초대·2대 회장 역임(일간스포츠 2월19일 李健기자)

●독서성향 문항류 퇴조 년픽션 강세 / 올베스트 1·2·3위 비소설류 차지 / '일시적 이상기류' '선진의 국형 추세' 엇갈려(국민일보 2월19일 韓赫鍾기자)

●환경조각 다룬 전문서적 국내 첫 출간-崔秉尙 이대교수의 이론·화보 담은 「환경조각」 / 美·加·日 3국 답사...設問조사도(중앙일보 2월20일)

●「한국산 버섯도감」 펴낸 金三純 박사-인터뷰 / 10년 걸린 작업 3

백25종 수록(동아일보 2월20일 梁泳彩기자)

●현대사 소설 '사실' 탐구 미흡-광주 민주화운동 4·3제주사태등 소재 잇달아 / 현지조사·문헌연구 뒷받침돼야 / "역사적 평가는 작가영역 아니다" 반론도(국민일보 2월20일 李太熙기자)

●梁建植 단편「슬픈모순」 소개-64년 「조선문학」에 게재됐던 것 「창작과비평」 봄호서 전제 / 소외된 지식인의 하룻동안 감정 흐름 묘사 / 1910년대 사실주의 소설연구에 큰 도움(중앙일보 2월21일 李京哲기자)

●추리소설집 출간붐-출판사들 작가확보 경쟁 '후끈' / 연초부터 돌풍 몰고와...이미 6권이거나 서점가에 쏟아져 / '1만부 정도 판매 무난'...선계약금 주며 작품연기 안간힘(스포츠서울 2월21일 박찬기자)

●젊은 佛子의 구도 몸부림 '양각'-연작 소설집 「그리운 등불 하나」 펴낸 金聖東씨 / 자전적 기록 8편에 '깨달음 과정' 담아 / 고행길 두 스님은 그대로 작가 자신의 모습(경향신문 2월21일 金東律기자)

●'원고가 부족하다' 출판계 비상-'지엽적 흥미 위주 기획 오래 못가' 지적 / 출판사 급증에 저작권 협약 설상가상 / 제목 형식 바꾼 재출간·짜깁기등 늘어(내외경제신문 2월21일 南眞祐기자)

●주제 중심 「한국사 특강」 출간-국사학자 18명 3년 공동작업 / 정치·사회경제사등 24항목 압축 / 현대사脫離전 입장에서 서술 노력(한국일보 2월21일 李基昶기자)

●문학지 「한길문학」·「문학동아」 창간-「한길문학」 80년대 문학운동 대중화 실현 / 이념장벽 돌파가능 수행 중점 「문학동아」(한국일보 2월21일)

●전국「옛다리」 38개 조사 축조기술 연구서 낸다-문화재관리국 3년 작업...연내 출간 / 橋梁구조·특성·공학기법등 다뤄 / 컴퓨터를 이용 안전계수도 산출(한국일보 2월22일 崔成子기자)

●「한국의 성과와 봉수」 전 3권 출간-30만 보이스카우트 대원 현지 답사 토대(경향신문 2월22일)

●시집 「붉은산 검은피」 출판 관련-李文求씨등 3명 영장 / 소군 진주 미화등 보안법 적용 / 재야문화단체 "출판탄압" 항의(동아일보 2월22일)

●일산출판단지 건설 '청신호'-정

부측과 구체협의 / 협동조합 이사장에 李起雄씨...새 전기 맞아 / 2백30개업체 '적극참여' 다짐 / 기금증액·자문위 구성등 본격 추진키로(매일경제신문 2월22일 李奉濤기자)

●「문화와 사업 양면 조화에 주력」 / 출판문화협회회장 權炳壹씨-인터뷰 / 도서관업무 문화부 이관 우선 과제(조선일보 2월23일 崔球植기자)

●「조합문화 개방-운영개선」 /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李起雄씨-인터뷰 / 「공동구관장 사업등 활발 추진」(조선일보 2월23일 崔球植기자)

●「사보 있으나 마나」 제기능 못해-한국 사보기자협회 심포지엄 / 결만 번드르 특장없고 수준도 낮아 / 경영핵심 벗어난 편집...전문화 필요(매일경제신문 2월23일 李奉濤기자)

●이문구씨등 연행 관련 문화부에 질의서-민족문학작가회의(한겨레신문 2월24일)

●「출판업계 SF소설 일군다」 / 홍미위주 밝은 소재 인기 높아 / 과학서적·영화등 저변층 늘어(일간스포츠 2월24일 李健기자)

●「악보없이 소리 교육 먼저」-서울대 이강숙교수 「음악선생님을 위하여」 발간 / 음악적 감수성 키워 듣는 즐거움 줘야 / 특정자료 한정 말고 상상력 키우도록(한겨레신문 2월24일 安正壽기자)

●교과서 왜곡 부분 바로잡기 한창-천주교중앙협 세계사편 자료집 발간 / 종교개혁·십자군운동등 14항 / 「大赦 의미는 면죄 아닌 면벌」 / 종파차원 떠나 진실 제공 사망(내외경제신문 2월24일 李允美기자)

●최고경영자 에세이 서점가 석권-「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」 이어 「사랑과 비즈니스에는 국경이 없다」 베스트셀러 1위 차지 / 朴婉緒 「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」 소설 1위에 / 「詩」 「시간의 얼굴」 「도적놈 셋이서」도 부상(경향신문 2월24일 安健憐기자)

●「4년제 대학 출판학과 설립 시급」 / 일부 특수대학원·전문대서만 교육 / 기획부문 등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(중앙일보 2월26일 鄭僑濬기자)

●「서울출판인클럽 생긴다」-회장 없이 총무 중심제로 '골든북' 제정·정기토론회(한겨레신문 2월27일

신연숙기자)

●「서울출판인클럽 생긴다」 / 내달 15일 창립...유과 초월 공동이익 도모(한국경제신문 2월27일)

●지원 끊긴 문예지 기업광고로 활로 모색 / 2월호부터 원고료 안나와 / 「現代詩學」 광고후원회 '눈길' / 기업이 문화지원 주체돼야(중앙경제신문 2월27일 朴海鉉기자)

●새 한국사 개론서 출간 잇따라 / 민중사학·논쟁중인 학설등 다뤄 / 기존서적들도 내용 대폭손질 재출판 / 통일외지 반영...북한연구도 소개(중앙경제신문 2월27일 金龍善기자)

●출판계에 30~40대 바람 / 소장출판인들 서울출판클럽 추진 / 분과주의 배격...유통현대화에 앞장(중앙경제신문 2월27일)

●대형서점 '책방'서 '문화백화점'으로 / 컴퓨터·문구류등 별도매장 크게 늘려 / 학생들 선호 상품 판매...營業 다각화 / 돈벌기 치중 '도서판매장' 기능 위축 우려도(매일경제신문 2월28일 李奉濤기자)

●「좋은책 읽고 학점도 따고」 독서 아카데미 이색 운동-한우리독서운동협서 추진 / 1차로 국민필독도서 1백권 선정 착수 / 연극·영화·고적답사등 문화활동도 병행 / 내달 중순께 서울등 12곳 개설(한국일보 2월28일 李亨基기자)

●「분야별 文獻目錄」 14권 출간 / 79~87년 발표 전국 학술 논문 집대성(한국일보 2월28일)

●奇亨度 1주기 / 내달 6일 詩문화회관...유작집도 곧 출간(내외경제신문 2월28일)

●서울출판인클럽 결성-3월15일 창립총회...김인호씨등 백여명 참여(내외경제신문 2월28일)

●民族主義 본격 연구서 나와 / 車基鏜교수 정년 맞아 「민족주의 原論」 출간 / 기존의 연구 학문적 성과 집대성 / 독특한 민족의식·통일이론 주목(세계일보 3월1일 李仲洙기자)

●6·25참전 미군에 의한 상처-安正孝의 두번째 영문소설 「白馬」 / 폭행당한 한 촌부의 불행·몰락 과정 소재 / 미 신문들 충격...알다튀 소개(한국일보 3월2일 朴來富기자)

●「한국映畵 70년 대표작 200선」 나와 / 해설·사진 함께 줄거리 소개 / 국내 첫 「영화用語해설집」도(한국일보 3월2일)